

□ '93아틀란타 가금전시회 이모저모

# 최첨단 기술로 생산성 극대화



'93아틀란타양계박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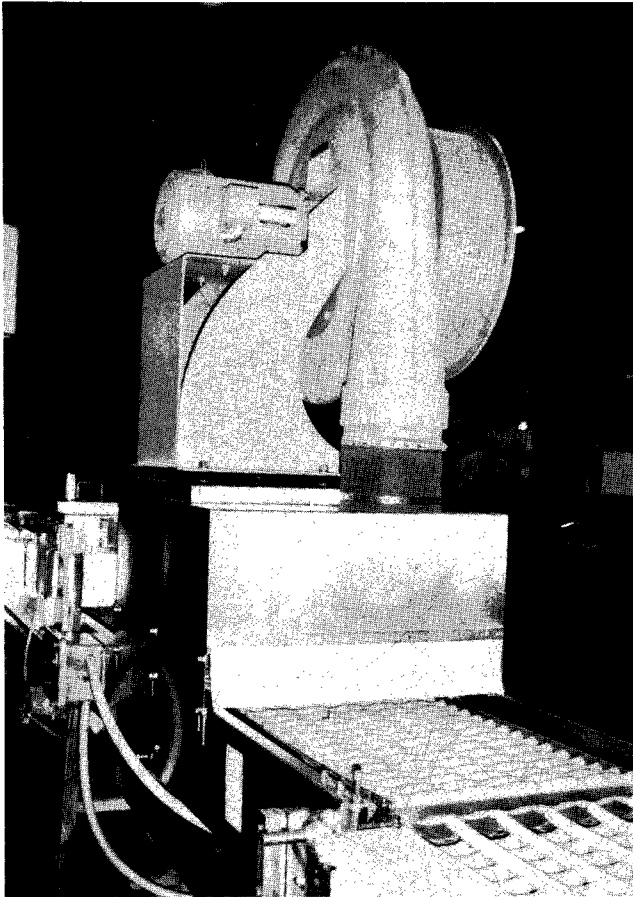
**인**류가 소비하는 축산물 가운데 가금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금육의 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민족이나 종교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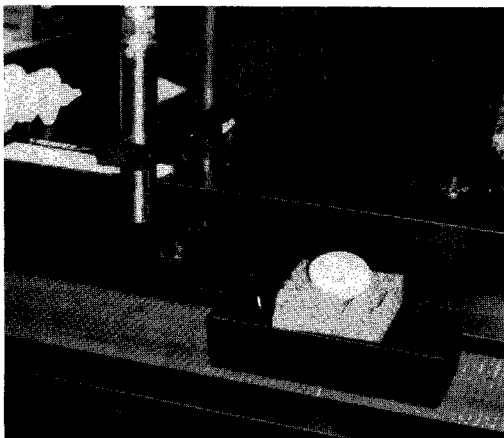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인류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전한데 따

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성을 띠면서 집단사육을 해야 하는 축산업은 축분처리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간의 무역경쟁이 심화되자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 대용량계란세척기(모바사)

(G·P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세란을 별도라인으로 세분화해서 처리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있다)



◀ 레이저 계란 스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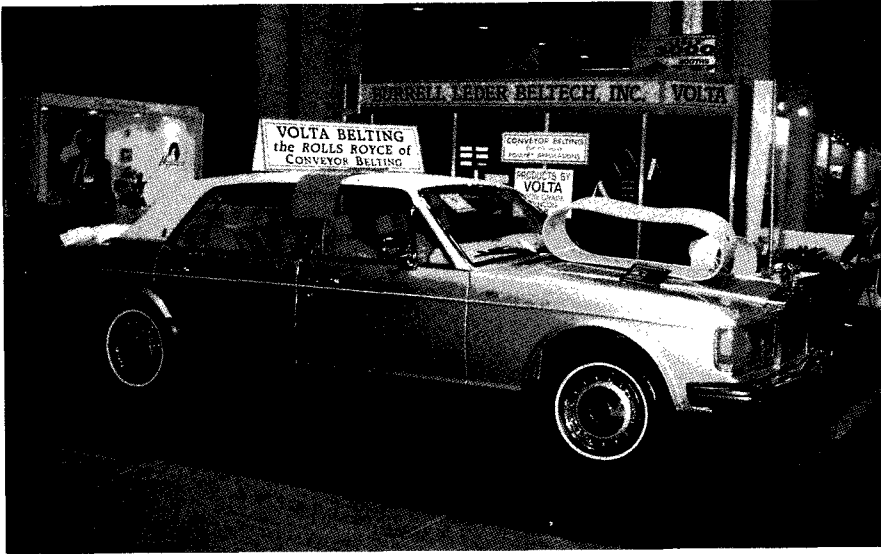
(계란에 레이저를 이용 로고, 제조일 등을 인쇄할 수 있는 장치)

부득이 양계산업도 육종 및 사양관리, 제반사육시설 등이 기술집약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는 바와 같이 양계산업과 관련된 전시회는 세계 도처에서 열리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규모면이나 인원동원 면에서 우선 손꼽히고 있다.

이번 미국 아틀란타(조지아주)에서 개최(1월 20~22일)되었던 세계양계박람회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교해 특출한 아이디어 제품은 눈에 띄지 않았고 다만 종전의 제품에 아이디어를 첨가하여 부피를 최대한 축소했거나, 정밀도를 한껏 높여 수요자의 발길을 잡으려 시도한 것이 특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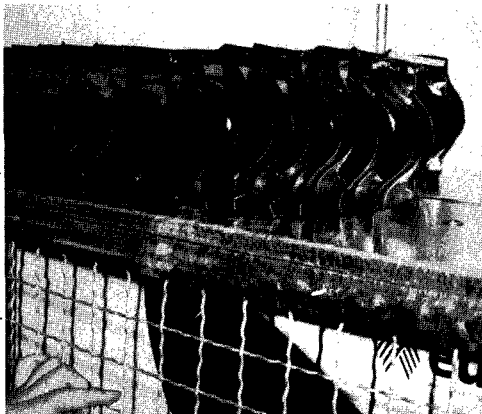
또한 자동화 면에서도 최첨단 기술을 응용하여 인력 투입을 최소화 했다거나, 생산된 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들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인 점은 예나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 벨트홍보  
(유명메이커 차를  
이용 벨트를 선전하  
여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있다)



▶ 주방용 칼의 위용  
(도계장에서 사용하는 칼을 선전  
하기 위해 면도를 통해 시범을  
보여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



▶ 무창계사 환기팬패드  
(무창계사가 보편화되  
면서 환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팬 앞에  
설치하여 빛은 차단하  
고 공기는 자유자재로  
흡입·배출시킬 수 있게  
고안된 신소재 패드)

국내 양계인들의 참여도  
는 매년 2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으나 금년은  
구정연휴(22일~24일)  
탓인지는 모르지만 절반 수  
준에도 못미치는 참관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서 이제는 시간과 큰경  
비를 들여 외국까지 직접  
가서 정보를 얻는다고 보다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양  
계박람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보여진다.

'93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  
회에 출품된 기자재중 새로  
운 몇 장면을 사진으로 소개  
한다. 양계

(자료제공 : 유경축산)